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4월 29일(화) 16시 : 연구원 사무국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 연구원에 새 식구가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새 식구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무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일욱 님이 주인공입니다. 박일욱 회원은 권삼일 회원의 지인으로 지적공사에서 근무하시다 퇴직 후 현재 토목 설계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뜨겁게 환영합니다.

- 연구원에 독서 모임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독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5월 19일(월) ~ 10월 31일(금)(10회 이내)

운영분야: 시(길잡이 / 김춘기 작가), 소설(길잡이 / 황지호 작가)

참여인원: 시, 소설 부문별 10명 내외(각 부문 5인 이상 시 개설)

참가회비: 회원 회당 1만원 / 일반시민 회당 2만원

신청마감: 5월 15일(목)

신청방법: 연구원 SNS, 또는 사업 담당자에게 신청(송정현 연구기획실장 / 010-9668-0171)하시면 됩니다.

- 시민문화강좌 열립니다.

오는 5월 17일 2025년 1차 문화강좌가 열릴 예정입니다.

“**흙 속에서 백제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 강좌는 이상균(전주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이상균 교수는 동경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전주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며 박물관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선사문화, 향토 문화재 연구 등입니다. 이상균 교수님과 떠나는 오래된 전북 이야기에 참석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사: 이상균(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 주제: 흙 속에서 백제를 만나다

- 일시: 5월 17일(토) 16시

- 장소: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징검돌 프로젝트 안내드립니다.

한 권의 책은 누군가에게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고 외로운 하루의 벗이 되기도 합니다.

‘징검돌 프로젝트’는 인문학의 숨결이 닿기 어려운 지역에 책을 전달해 누군가에게 ‘생각의 징검돌’이 되어주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총 56권의 도서가 기증되었으며, 그 한 권 한 권이 따뜻한 위로와 울림으로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본 사업은 상·하반기 두 차례로 운영됩니다.

상반기 기증 마감은 6월 30일, 목표는 100권입니다.

한국고전문화연구원은 인문학으로 지역과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 기증 문의는 연구원 에스엔에스나 유무선 통신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 담당자는 송정현 연구기획실장입니다.

■ 역사 속의 오늘

한국 최초의 볼펜 - 1963. 05. 01.



근대화와 더불어 사라져 간 붓을 대신해 필기구의 혁명을 가져온 것이 볼펜(Ballpoint pen)이다. 깎아 쓰기 위해 칼이 필요한 연필이나 잉크를 찍어 써야하는 펜촉, 보충용 잉크가 필요한 만년필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한 것이 바로 볼펜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뒤였지만 한국에서 생산하는 필기구는 연필과 만년필이 전부였다. 그해 열린 제5대 대통령 선거를 5개월 보름여 앞둔 5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볼펜이 만들어졌다.

1960년 광신화학이라는 이름으로 필기구나 사무용품을 판매하던 기업은 60여년이 흐른 지금도 애용되며 현재까지 40억개에 가까운 누적 판매량을 자랑하는 볼펜을 1963년 5월 1일 만들었다. 순수한 발명품이 아니라 일본 오토(オート)사의 '연필형 노크식 오토 326 (鉛筆型ノック式AUTO326)' 펜의 독특한 디자인을 채용, 변형하여 개발한 제품이었다. 이 볼펜은 1963년 개발, 시판된 이래 지금도 여전히 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볼펜하면 떠오르는 대명사에 다름없는 디자인으로 시판된 이 볼펜의 이름이 바로 "모나미 153"이다. 볼펜 이름인 모나미는 내친구라는 프랑스어 '몽아미(mon ami)'에서 따왔고 153의 15는 당시 판매가격이었던 15원을 의미하고 3은 기업에서 생산된 세 번째 제품을 의미했다.

혹자는 판매 개시일인 1963년 5월 1일의 351을 뒤집은 숫자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숫자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싸인펜의 제품명으로 사용되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153"은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성경 구절을 의미하며 153 볼펜은 하나님의 뜻, 즉 순리에 따르면 그만큼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총인 AK-47을 본 따 볼펜계의 AK-47로 불리기까지 하는 이 볼펜은 매우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며 낡아서 부서지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내구성을 갖고 있다. 가끔 운동장 웅덩이에서 볼펜의 용수철이 녹슨 채 발견되어도 필기가 가능하다는 전설같은 경험자를 만날 정도이니 그 튼튼함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필기 이외에 몽당연필의 이 볼펜의 펜대에 끼워 쓸 것을 학교에서 권장할 정도로 활용되었고 선거 도장이 도입되기 전 볼펜 뚜껑이 기표 도구로 사용되는 일도 흔했다.

1963년 이 볼펜을 판매하기 시작한 회사는 1967년 아예 회사 이름을 제품 이름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